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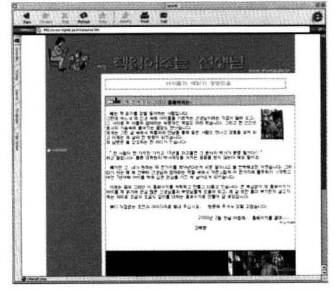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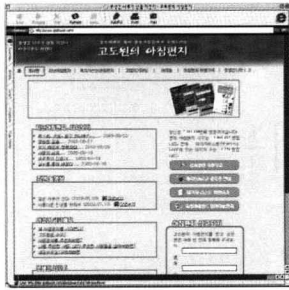
사이버 책 전도사들, 웹상에 세운 그들의 책집

책읽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와 회사에서의 책읽기 운동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고 너나할 것 없이 다양한 매체에서 책을 읽자고 권유한다. KBS의 'TV, 책을 말하다', SBS의 '김영하의 책하고 놀자'는 물론이고 MBC의 '느낌표'는 예능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소개하면서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다. 방송 매체가 '책'을 주제로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방송매체의 책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사이버상에서도 책 전도사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인기도 끌고 있다. 개인적인 성취감을 넘어서 타인에게 양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 책 전도사들이 지식문화의 최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책 전도사들의 서가를 소개한다.

〈고도원의 아침편지〉 www.godowon.com로 유명한 고도원 씨는 지난 2000년 8월 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고도원 씨가 읽은 책들의 중요 구절들이 적혀 있다. 그는 〈뿌리깊은 나무〉와 〈중앙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하고,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연설담당 비서를 지냈을 만큼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그가 책 전도사 역할에 나선 것은 책 한 권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시골 목사였던 아버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책을 모으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그는 서가의 책 속에서 아버지가 그어놓은 밑줄들을 발견하면서 삶의 희망을 얻고 그 희망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책 속 중요 구절들을 메일로 보내주는 이유 역시 아버지의 밑줄 친 책 속에서 얻은 감

동과 희망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그는 최첨단 컴퓨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침편지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그가 초반에 보낸 편지 중에는 노신 씨의 〈고향〉속 한 구절을 담은 편지가 있다. 베르베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독자는 당시 "힘이 되어주는 당신의 편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고도원 씨의 편지가 아침 시간 이메일을 열어보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거라는 말을 남겼다. 홈페이지 운영은 약 3년간 계속되었고 2003년 8월 현재 회원이 백 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백 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메일을 통해 고도원 씨의 편지를 받고 간접적으로나마 책을 선물받은 셈이다. 그러나 고도원 씨가 일방적으로 책의 의미를 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홈페이지에는 매주 토요일 독자들이 쓰는 아침 편지란도 마련되어 있다. 주인인 고도원 씨의 성실도만큼이나 회원들의 참여도와 열의도 높아져 간다. 최근 한 독자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좋은 글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게시판에 남겼다. 그의 말처럼 고도원 씨는 서가에 꽂힌 많은 책들 중에서 좋은 책을 택해 그 좋은 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소개한다. 무조건 특정 도서를 권장하기보다는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을 통해 독자들을 책 속으로 이끄는 그만의 노하우가 여러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홈페이지는 현재 '십시일반'이라는 아침 편지 식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특한 콘텐츠로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현영석 교수는 대덕밸리 일대의 대학교수, 벤처기업인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100권 독서클럽〉 www.100booksclub.com을 만들었다. 〈100권 독서클럽〉은 이름 그대로 100



왼쪽부터 <고도원의 아침편지>와 <100권 독서클럽>, <강백향의 책 읽어주는 선생님>.

권 독서를 권장하고 읽은 100편의 독후감을 쓰기를 권한다. 현영석 교수와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 송윤호 학생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는 2주에 한 번씩 1,2권의 도서를 추천한다.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개인 지식창고가 마련되고 자신이 쓴 독후감을 개인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100권이 누적되면 인증서가 나온다. 현영석 교수는 이 모임을 온라인 모임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시킨다. 매달 2,4주에 운영진을 비롯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독서토론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해 웹상에 올리는데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내용을 확인하며 책의 성격과 장단점을 알 수 있다. 현영석 교수는 “대덕밸리 내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요즘 대학생들의 독서량이 부족해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대덕밸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되려면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버상에 어린이책과 청소년책 서가를 만든 인물도 있다. <강백향의 책 읽어주는 선생님> www.mymeil.pe.kr는 규모는 작으나 알짜 어린이책 정보를 가득 담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웬만한 어린이 서점 홈페이지나 어린이 관련 웹진 이상의 자료들로 가득차 있다. 강백향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필연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그는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며 독서교육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독서교육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란다. 그는 동화 읽는 교사

모임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얻은 독서교육 자료들을 업데이트 한다. 그리고 단순 정보 외에 새로 나온 우리나라 동화와 외국동화들을 리뷰 형식으로 소개하기도 하다. 그러나 강백향 씨의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작 강백향 씨의 글이나 추천 도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두 아들 환훈, 환일이가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한 코너다. 환훈이는 책을 다치는 대로 많이 보는 책벌레다. 강백향 씨는 환훈이가 쫄 베른의 책맛을 알게 되었다면서 중학생이 되는 환훈이가 읽은 책을 소개해 준다. 각각 14살, 10살인 환훈이와 환일이가 읽은 책 목록을 참고삼아 아이들이 읽을 책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밖에 ‘강백향의 마음 가는 대로 살기’를 통해서 강백향 씨와 아이들의 쓸쓸한 일상 이야기를 엿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강백향 씨의 홈페이지는 내 아이에게 좋은 책을 권하고 싶은데 어떤 책이 좋을지, 책읽기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달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맞춤형 정보창고다.

<고도원의 아침편지>와 <100권 독서클럽>, <강백향의 책 읽어주는 선생님>은 특정 정보를 제공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홈페이지를 만든 주인들은 모두들 좋은 책정보를 타인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신간서적들 중에서, 대형서점에 빼곡히 들어찬 책 속에서 나와 내 아이에게 필요한 책은 무엇인지 막막해 하는 독자들에게 이들의 홈페이지 방문을 적극 추천한다.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 이런 고민도 끝이다. ■

취재 김정연 기자